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2(화) 총 2 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 원	담당 자	• 정밀검사과장 • 담당자	임지훈 ☎440-5481 정은하 ☎440-5482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관내 생산 및 유통 계란 집중검사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!

- 생산 및 유통계란 항생제 및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 -
- 생산지 16개소 및 유통지 40건 모두 적합 판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관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및 식용란수집판매업·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잔류물질 집중검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.

이번 검사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닭진드기*가 많아지는 여름철 맞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관내 전체 산란계 농장과 메추리 농장의 식용란(계란 및 메추리알)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,

* 닭진드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 등으로 구제를 실시함

관내 산란계 농장 12개소(남동구 2, 계양구 1, 강화군 8, 옹진군 1)와 메추리 4개소(강화군-인천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)에 대해 살모넬라균 3종과 잔류물질(항생물질 43종 및 살충제 34종)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.

또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마트 등에서

유통되는 계란 40건(중구 1, 동구 1, 미추홀구 3, 연수구 1, 남동구 8, 부평구 9, 계양구 5, 서구 7, 강화군 5)의 잔류물질(항생물질 17종 및 살충제 34종)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1건의 부적합 결과 발생 이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 부적합 결과가 단 1건도 없었다” 며 “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축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계란 잔류물질 검사 사진

